

나의 찬송 나의 기도

My Praise & My Prayer

시편 8:1-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7월 24일 설교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¹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²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³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⁴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⁵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⁶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⁷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⁸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⁹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수미쌍관법

오늘은 시를 한 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우여!”♫ 우리가 노래로 잘 아는 시편입니다. 제목을 보니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영장은 당시 성가대장을 가리킵니다. 성가대장에게 준 노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겠지요? 깃딧은 곡조 이름인지 악기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곡조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시라 했습니다. 시는 말, 곧 언어를 갈고닦아 만든 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이니 우선 아름답기도 하고 또 말 몇 마디에 크고 깊은 뜻을 꼭꼭 눌러 담았기 때문에 함축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다른 뜻, 그러니까 상징을 많이 씁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게 상징이지요.

그 밖에 시에서 많이 쓰는 기교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 시편 8편은 수미쌍관법이라는 기교를 쓰고 있습니다. 수미쌍관법,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지요?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통한다.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똑 같게 아니면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 가운데서도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는 처음하고 나중에 똑같고 “산유화” 같은 시는 뜻은 반대이면서도 모양은 비슷합니다. 수미쌍관법을 쓴 대표적인 시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우선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만든 구절을 두 번 써 먹으니 좋지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세 구절로 끝날 시가 수미쌍관법 덕분에 네 구절이 됐습니다. 시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같은 구절이 반복되니 외기가 쉽지요. 시인 누이도 좋고 독자 매부도 좋으니 자주 안 쓸 까닭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

수미쌍관법을 쓰는 진짜 이유는 우선 처음과 끝이 같아 운율이 생기고 음악적인 효과가 납니다. 또 앞뒤가 똑같으니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 뒤에 쓴 그게 주제라는 말입니다. “엄마야 누나야”도 그렇고 “산유화”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뭐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와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두 번 거꾸 썼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 말해 놓고 중간에 다른 내용을 덧붙인 다음 끝에 가서 한 번 더 말하면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깊은 뜻이 담기게 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처음 언급한 그 주제를 설명하는 거지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면 “강변이 뭐가 좋은데?”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요. 그 때 앞뜰에는 금빛 모래가 반짝이고 뒷마당에서는 갈대가 노래를 부를 거다 설명합니다. 야, 멋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즈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고 마무리를 하면 나도 모르게 한강맨션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말로 다 “주”라 했습니다만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는 주님 곧 주인이라는 말이고, “주의 이름이” 할 때는 그냥

이인칭 대명사 대신 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인칭 높임말이 없어 주라고 쓴 건데 우리말로 알고 보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되풀이할 때만 빼고 본문에 나오는 주는 다 영어로 하면 유 (you) 입니다. 제가 옮길 때는 2인칭을 다 “그대”라는 말로 옮깁니다.

“아름다운지요” 했는데 그냥 보기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엑셀런트 (excellent) 또는 매제스틱 (majestic) 이라 옮겼습니다. 뛰어나다, 장엄하다, 웅대하다, 위엄이 있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주권, 이런 게 온 땅을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을 어느 정도로 덮고 있느냐 하면 하늘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는데 땅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 위까지 뻗어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있는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자취를 따라 올라가다가 드디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가리켜 “주의 하늘” 곧 “그대의 하늘” 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하늘이겠지만 (시 115:16)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이라 부릅니다. “그대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대의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이 생각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빚어 만드시는 것처럼 손가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 2:8; 17:8).

하늘을 보니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에 있는 달과 별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해서 거기 있게 된 것들입니다. 그 때가 보름이었던지는 모르지만 밤에 바라보는 달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보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깨끗한지 말도 못합니다. 별이 안 아름다웠으면 우리가 알 풍스 도데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자리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게 하늘 아닙니까? 달하고 별도 하늘에 있으니 까마득히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작 높은 건 그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위에 있다고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멋지게 만드신 건 사람입니다. 만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뭐기에 남달리 기억해 주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 원문대로 하면 아담의 아들이 뭐기에 그렇게 챙겨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 주셨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원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겠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는데 관을 씌운다는 건 말 그대로 왕관을 씌우는 건데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 모든 만물보다 높은 존귀가 바로 그 왕관입니다.

그렇게 왕관을 씌우신 다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양과 소,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사람 발아래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 첫 구절을 다시 한 번 노래하고는 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 하늘까지 뻗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질서, 곧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왕관을 씌우시고 다른 피조물은 다 사람 발아래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질서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온 땅과 하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괴된 질서

자, 이 시의 내용이 이게 다라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영광을 보고 감동해 쓴 게 이 시편 8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없애야 할 구절이 하나 있지요? 뭐니까? 전체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게 한 구절 있는데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 높은 하늘까지 들어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대적이 왜 나오니까? 원수는 누구며 보수자는 또 누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하게 원수, 대적, 보수자가 나올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이 우주에 그 영광을 거부하고 그 영광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고 말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것이지 누가 만들고 어찌고 한 게 아니라 합니다 (벧후 3:4-5).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시 14:1).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사람에게 씌우셨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옛그제만 해도 노르웨이에서 한 사람이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갈겨 아흔 세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가 마약에 찌들려 결국 죽었습니다. 지난 이삼일 동안 미국에서는 총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쓴 사람의 모습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일본을 덮친 쓰나미를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죽고 화산이 터져 죽고 기차가 탈선해 죽고 갖가지 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만물을 사람 발아래 두셨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큰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원수가 오늘도 큰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결국 이 시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더럽혀지고 무시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대 이름이 온 땅에 참 웅대합니다, 하고 노래하는데 이렇게 더럽혀지고 왜곡된 자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송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밝은 대낮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읊은 노래가 아닙니다. 양과 소, 들짐승이 나오고 새와 물고기도 등장하지만 그걸 노래하는 지금은 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캄캄한 하늘에 떠 있는 빛, 곧 달빛과 별빛입니다. 땅에 비치는 그 빛을 보다가 눈을 들어 그 빛을 발하는 달까지, 별까지, 그 달과 별을 품고 있는 하늘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까지 뻗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밤입니다. 믿음의 빛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향한 특별한 배려를 노래합니다. 사람을 참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람 발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사람을 복종해야 할 피조물이 가시와 영경귀를 내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어기고 거꾸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없다 합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집힌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저주받은 우주를 저주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하나로 오셔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참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 여호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완전히 뒤덮을 것입니다. 부인하는 자 없이, 아니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 그리스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우리가 아는데 공부해 아는 게 아니라 믿어 압니다 (히 11:3).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는 세상, 그건 현실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영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대적이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온 우주가 제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심지어

어 젓먹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마 11:25). 그냥 보는 대로 말합니다. 젓먹이는 아예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대신 지금까지 큰 소리치던 대적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가르칩니다.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히 2:7-8).

말 한 마디에 뜻을 꼭꼭 눌러 담은 게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과 그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행 2:30). 만물이 사람 발아래 복종해야 맞는데 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시고는 만물로 하여금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9-10).

찬송과 기도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 2:9).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될 것이다, 곧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받으실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는 바로 그 수난에 이어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 아이들이 예수를 보고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 21:14-16).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따졌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대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본문 2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8편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도 이 시편이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만물이 아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하였습니다. 구원 사역이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옛날 다윗과는 달리 주님이 오신 다음 이 시편을 읽는 우리도 아직은 이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읽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읊었던 때처럼 아직은 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니 이제 새벽이지만 먼 동은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주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요. 무성한 나무를 보십시오. 파란 잔디도 보세요. 하늘은 또 어떻습니까? 한여름 구름은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많습니다. 너무 더워 사람이 죽습니다. 비가 많이 와 죽고, 돌개바람이 불어 죽고, 지진이 나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사고가 나 죽고,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안 다쳐도 언젠가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묻혀 있는 묘지를 방문하고는 글을 썼습니다. 높다란 나무, 잘 다듬은 잔디가 참 아름답더라 하면서 살았을 때 이 정도 아름다운 곳에서 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묘지가 아름다우면 뭐 합니까? 죽음이 아름답지 않은데 죽어 묻힌 곳이 아름다우니 더 답답하지요.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 있으니 아직은 만물이 우리 발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발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참 아름답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연입니다. 원수가 지배하고 대적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큰소리에 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 가운데 불순물도 섞여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얼른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가득할 그 날이 얼른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이면서

또 기도가 됩니다.

수미쌍관법은 앞에 쓴 걸 뒤에 다시 쓴다 했지요? 뒤에 쓴 건 처음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한 다음 쓴 것이니 처음 몰랐던 뜻도 담깁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그저 찬송으로 들린다면 뒤에 나오는 구절은 찬송인 동시에 기도로 들립니다. 첫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는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도 있는데 싶어 조금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깨닫고 난 다음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려 덮어 주옵소서 하는 간구를 담아 더욱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와 자연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이들 하다 오셨지요? 우리 사는 자리를 보면 오늘 본문하고 참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집에도 구석구석 꽉 차 있습니까? 글썽올시다 아닙니까? 내 일자리에도 하나님 영광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덮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밀고 당기고 싸우기도 하고 눈치도 보고 거짓말도 대충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말 한 두 마디 때문에, 욕도 먹고 성도 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진 소원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원수도 대적도 얼른 다 사라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일터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면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연 재해나 온갖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만물이 다 그 아래 복종하게 될 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니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 찬양 맞지요. 오늘도 어두운 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원수가 큰소리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 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